

## 고인돌

고인돌은 '고여있는 돌'이라는 의미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입니다. 재산이 많고 권력도 가진 지위가 높은 사람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고인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배자의 힘이 세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인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부족의 힘과 협동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탁자식 고인돌

고인돌은 유럽, 인도,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절반 정도가 모여 있어서 '고인돌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고인돌이 많이 모여 있는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화순, 인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은 당시의 기술과 사회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줌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고인돌 근처에서 토기, 향아리와 반달 돌칼, 돌낫, 돌도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농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동기는 만들기 어렵고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보통 지배자들만 사용했는데 비파형 동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유물들을 통해 지배자가 있고 농사가 중요했던 당시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반달돌칼



비파형 동검



민무늬 토기

이미지출처 : 문화재청